



전주대 레슬링부, 전국대회 '종합우승' 쾌거

전주대학교 레슬링부가 최근 장흥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3회 헤럴드경제·코리아헤럴드배 전국레슬링대회'에서 그레코로만형 단체 종합우승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 손태양(67kg 운동처방학과 4년), 최주완(77kg 운동처방학과 1년), 윤동현(97kg 운동처방학과 4년) 학생 선수가 각 체급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또한 진영준(55kg 운동처방학과 2년)은 은메달을, 민슬기(82kg 인공지능학과 3년)는 동메달을 따내며 활약을 펼쳤다. 자유형 부문에서도 값진 성과가 이어졌다. 김현민(65kg 경영학과 1년), 정근술(70kg 운동처방학과) 학생 선수가 각 체급에서 동메달을 추가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윤동현 학생 선수가 최우수선수상을, 김윤호 감독이 우수지도자상을 각각 수상했다. /장은성기자



전주대 씨름부, 전국대회 개인전 2체급 석권

전주대학교 씨름부 유희승·이희준 학생이 최근 보성군 다한체육관에서 열린 제3회 대한체육회장기 전국장씨름대회에서 각각 개인전 용사급 및 역사급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씨름부의 위상을 드높였다. 이에 따르면 먼저 용사급에 출전한 유희승(생활체육학과 4년) 학생 선수는 집전 끝에 인하대 이재승 선수를 꺾고 본인의 생애 첫 전국대회 우승이라는 값진 결과를 일궈냈다. 유희승 학생 선수는 매 경기마다 특유의 끈기와 냉철한 판단력으로 강력한 상대들을 꺾고 대학 씨름 최강자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 또한 역사급에 출전한 이희준(생활체육학과 1년) 학생 선수는 특유의 '뿌러치기' 기술로 상대를 압도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장은성 기자

서남유리건업, 남원 도동동서 주거환경개선 재능기부

남원시 도동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소신자)는 주거환경 취약가구를 발굴해 서남유리건업(대표 이윤리)이 재료비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화장실 환경개선 재능기부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해당 가구는 배우자가 없이 자녀와는 가족관계가 단절된 홀몸 어르신으로, 장기간 루세시 화장실로 많은 생활 불편과 위생 및 안전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으나 스스로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동 행정복지센터는 내부 사례회의를 거쳐 대상으로 선정해, 서남유리건업과 민관 협력으로 변기 설치 및 화장실 환경 개선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해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변화를 주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노인학대 예방·종사자 인권교육

남원시는 16일,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지역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400명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종사자 인권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노인돌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노인인권의 이해, 노인학대 신고 절차와 대처방안 등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실제 발생하기 쉬운 인권침해 및 학대의 사례를 토대로 강의를 진행하였다. 교육 참석자들은 "실제 사례 중심의 교육을 통해 돌봄 업무 현장에서의 대응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었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농업도 환경과 함께 가야 한다'

전북대서 '파프리카 재배 부산물 재활용' 토론회 열려

파프리카 재배 후 버려지던 부산물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15일,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에서는 '파프리카 재배 부산물 재활용'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시설재배 파프리카 부산물 종류별 합리적 재활용 생태계 조성 로드맵' 연구의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그동안 파프리카를 재배한 뒤 남은 줄기, 뿌리, 배지 등은 대부분 폐기물로 처리돼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부산물도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연구되면서, 환경을 생각하는 농업이 주목받고 있다. 이번 연구를 맡은 전북대학교 이준규 교수는 "이제는 농업도 단순히 많이 생산하는 것에서 벗어나,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파프리카 부산물을 재활용하면 폐기물 문제도 줄고, 새로운 산업적 가치도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를 함께 진행한 농업회사법인 코퍼(주)의 신형민 대표는 "현장에서 매년 엄청난 양의 부산물이 버려지고 있다"며 "이제는 생산량만이 아니라 환경도 함께



생각하는 농업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전북대학교를 비롯해 충남대, 국립목포대의 교수진과 파프리카 생산 농가, 수출업체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열렸으며 부산물의 처리방안에 대한 현실적인 의견을 나눴다.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며, 부산물의 효율적인 처리와 자원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논의됐다. 토론회 이후에는 참석자 간의 친한 자리를 통해 현장과 연구기관 간의 협력 관계도 다졌다. /이만호 기자

진안군 춘우장학재단, 제26회 장학금 지급·증서 수여

지난 15일 오전 11시 진안군 춘우장학재단 2층 소회의실에서는 춘우장학재단의 문경모 이사장과, 전춘성 군수 교육지원청 이승원 장학사, 각 학교장, 임원 및 학부모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제26회 춘우 장학금과 장학증서 수여식'이 열렸다. 이날 선발된 장학생은 진안출신 대.고.중.초.등 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모범학생을 재단이사장과 진안교육지원청을 통해 각 학교장 추천을 받아 100만 원씩, 고등학생에게는 각 50만 원씩을 지급하고, 중학생과 초등학생은 각 20만 원 총 1억8000만 원이 지급되어 재단 설립 이래 26회에 걸쳐 375명에게 2억622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문경모 이사장은 "오늘의 장학금은 본인의 어머니(양삼순)께서 지금까지부터 28년간 평소 근검절약 하시어 이룩한 사재를 서울에서 치과분야의 원로이신 아버님(故 문홍조 박사)의 뜻을 받들어 2억 원을 기탁하여 어머니께서 남고 자란 고향 주천에 장학재단을 설립하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2011년 10월에는 본 재단 초대이사를 지낸바 있고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시고 고등고시 행정학과 합격 후 재무부와 경제기획원 서울지방 국세청장과 국제청장, 국제청 차장을 역임한 한국 알콜산업 주식회사 지참수 회장(이사장 외숙)께서 본 재단에 3억 원을 쾌척하시어 총자산 5억 원의 장학재단을 운영하게 해주신 2분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농협 남원시지부 등, 돌봄대상자에 행복 나눔

농협 남원시지부(지부장 오영석)와 남원농협(조합장 박기열), 한국전력 남원지사(지사장 김종관)는 16일 남원시 돌봄대상자 155가구에 150만원 상당의 생필품 지원과 노후전기설비(누전차단기 등) 점검 및 교체를 추진했다. 이날 행사에는 오영석 지부장, 박기열 조합장, 김종관 지사장 등 임직원 10여명이 함께했다. NH농촌진흥청농사단 사업은 농업인행복콜센터 상담을 통해 접수된 취약 돌봄대상자 농가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생필품 지원 등 수요자 니즈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박기열 조합장은 "따뜻한 온기가 넘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라고 밝혔으며, 김종관 지사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조해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튀르키예 산림조합연합회, 진안군 산림관련 시설 방문

튀르키예 산림조합연합회가 국내 산림기술 및 제도 교류를 위해 진안군에 위치한 산림조합중앙회 진안교육원을 찾았다. 튀르키예 산림조합연합회 대표 에뎀 카를란을 비롯한 임원진과 농림부 관계자 등 13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이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진안교육원을 방문해 교육 프로그램 및 산림기술 시연을 체험했다. 방문단은 진안 부귀면 신령리 실습장에서 진행된 벌채 및 파쇄 작업 시연에 참여, 국내 산림 기술에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진안교육원의 숙박·교육시설을 둘러보며 산림 전문 인력 양성 시스템을 견학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남원시, 산불 피해 지원 총 1900여만원 공동모금회에 전달

남원시는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로 막대한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지난 3일부터 9일간 모금 활동을 벌여 총 1,900여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금은 시청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이는 갑작스러운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돕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의 결실로 이봉장연합회 및 발전협의회, 지역 사회단체들이 동참하는 온정을 보였으며, 이번 성금 모금은 오는 3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번 모금은 단순히 금액의 크기를 넘어,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향한 남원시민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뜻깊은 나눔으로, 피해 주민들에게 이러한 정성이 잘 전달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남원시는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언제든지 손을 내밀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부안군, 울산 울주군 산불 피해 성금 1300여만원 전달

부안군이 영남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해 울산광역시 울주군 산불 피해 지원 성금 1343만 6000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부안군청 소속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해 모금했다. 성금은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울주군에 지정 기탁되며 산불 피해 주민의 긴급 구호, 복구 지원, 이재민 대상 생활 안정 등 다양한 지원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갑작스러운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전 직원이 한뜻으로 동참했다"고 위로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남원 공동육아나눔터 5호점, '신한 SW경진대회' 입상

남원시는 공동육아나눔터 5호점(농동)이 지난 2월 여성가족부와 신한금융희망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최하고 사회연속4.0 이주관한 '신한 꿈도담터 SW경진대회'에서 대상과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경진대회는 공동육아나눔터를 이용하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과 과학적 사고역량 증진을 위한 찾아가는 체험형 코딩교육과 심화교육을 진행했다. 수상은 코딩 사고력 부분에서 대상인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김영찬(농동초 3학년)·정우석(산내초 5학년)팀이 수상하고, 우수상인 신한금융희망재단 이사장 상을 △박한술(농동초 4학년)·박한주(농동초 2학년)팀이 수상했으며, 남원시가족센터는 16일 공동육아나눔터 5호점에서 시상식을 갖고 상장 및 상금을 전달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유니드비티플러스, 무주군에 성금 1천만원 기탁

(주)유니드비티플러스에서 16일 산불 피해 주민들과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 1천만 원을 무주군에 기탁했다. 한상준 대표는 "무주군은 지난해 청소년시설의 마루 시공을 지원하면서 인연을 맺었는데 얼마 전 산불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안타까웠다"라며 "성금은 유니드비티플러스 임직원들이 한마음이 돼 마련한 것인 만큼 피해 주민들의 재기를 돕고 또 무주지역에 거주하는 어려운 형편의 주민들을 지원하는 데 요긴하게 쓰이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주)유니드비티플러스는 가구 및 인테리어 전반에 사용되는 목질판상재 제품을 비롯해 마루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로, 국산 목재 활용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ESG 경영을 선도하며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김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요촌동에 물티슈 기탁

김제시 요촌동 행정복지센터는 김제시장애인보호작업장(해내리, 원장 유호열)이 물티슈 80매입 300개(금 6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근로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티슈를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기탁했으며 이를 관내 취약계층 및 위기가정에 전달할 예정이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지난 2011년 개관한 이후 해내리 물티슈를 제작·판매하는 시설로, 중증장애인 30명에게 소득보장과 지원을 돕는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전국 최초로 보건복지부에서 인증하는 물티슈 부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과 장애인생산품 인증을 받았으며, ISO 9001·14001을 인증받아 해내리 물티슈의 우수한 품질과 환경을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유호열 원장은 "지역사회의 관심과 사랑으로 보호작업장이 성장할 수 있어서 늘 감사하고, 특히 장애인들이 직접 생산한 물티슈를 나눌 수 있어서 뜻 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제=곽태 기자